

포스터 III-5

제 목	국 문	국내 암 관련 연구 논문의 다학문 연구 현황	
	영 문	Status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in studies about cancer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박상중, 신현화*, 이영성* 성균관의대 삼성의료원 내과, 충북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영 문	Sang Jong Park, Hyun-Wha Shin*, Young-Sung Le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College of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박상중
발표 형식	포스터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98 년 10 월		
<p>1. 연구 목적</p> <p>의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연구 재원 이용의 효율성과 연구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 형태인 다학문 연구(Multidisciplinary researc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수행되는 다학문 연구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활성화되어야 할 다학문 연구의 바람직한 모형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국내 암 관련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한 다학문 연구의 유형에 대한 조사와 의학 연구자들에 대한 설문문을 통해 국내의 다학문 연구 현황과 의학 연구자들의 다학문 연구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p> <p>2. 연구 방법</p> <p>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총 37개 의학관련 학회지에 실린 논문 중 제목을 선정 기준으로 암 관련 논문 5029편을 선정하여 논문 저자들의 전공과 소속기관 및 Feinstein의 의학 연구 방법론(1985)에 따라 마련된 다학문 연구의 각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다학문 연구가 수행된 논문의 수와 각 유형들의 분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의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서 다학문간 연구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참여 경험을 조사하고 다학문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점들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최근 1년 간 다학문 연구로 인정되어 연구 재단을 통해 실제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진 암 관련 연구들의 유형을 위에서 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p>			

3. 연구결과

5029편의 암 관련 논문을 조사하여 저자들의 전공과 소속 기관을 기준으로 다학문 연구의 각 유형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었다. 전공에 따른 유형 중 의학과 자연과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 종사자가 함께 참여한 연구는 1%에 불과했고, 의학 내부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종사자가 참여한 연구가 1528편(30%)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여러 기관의 공동연구 형태로 분류된 572편의 논문을 다시 분류해 보면, 둘 이상의 의과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한 연구가 265편(46%)이었으며, 의대와 일반병원 소속인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한 연구가 235편(41%)으로 이 두 유형이 가장 두드러졌다.

설문조사에서는 평소 생각해온 Multidisciplinary research의 개념에 대한 설문에서 48%가 의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참여하는 연구라고 응답하였고 13.6%는 연구자의 구성에 관계없이 다양한 연구적 방법이 적용된 연구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16%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참여 경험에 대해서는 연구 유형에 따라서는 의학 내부의 여러 전문 분야가 참여하는 연구와 여러 병원이 참여하는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각각 63.7%와 57.1%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3년간의 유형별 참여 횟수는 각각 2.7 ± 1.8 회와 2.4 ± 1.4 회였다. 참여 수준에 대해서는 45.6%가 전과정에 걸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20%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였다고 응답하였다. 다학문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70.8%가 다양한 연구 방법을 이용한 연구 성과의 증대를 지적하였다. Multidisciplinary research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42.3%가 의학 연구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꼽았다.

4. 고찰

의학 연구의 발전을 위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다학문 연구의 유형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의학 이외의 학문들까지 포함하는 연구 형태를 지목하였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나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여 본 결과로는 이런 연구 형태는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학문 연구에 참여한 경험도 최근 3년간 평균 3회 미만으로 낮았고, 참여 수준에 있어서도 기초 자료만 제공하는 소극적인 참여가 적지 않았다. 다학문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의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국내에서 발표된 의학 논문의 데이터베이스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학문 연구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보았는데, 향후 이를 토대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다학문 연구의 유형과 다학문 연구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